

# “1만원 무제한 맥주” 강진 하맥축제 흥행 대박났다



1만원에 무제한 맥주를 즐길 수 있는 강진 하맥축제가 전국에서 7만여명이 방문하며 남해안 대표 치맥축제 명성을 입증했다. 2일 강진군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강진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2회 강진 하맥축제에는 수도권은 물론 부산, 세종, 강원, 제주 등지에서 온 관람객이 6만7천여명을 기록했다. 관광객은 전년 4만3천여명 대비 55% 증가했으며 입장 수익 역시 전년 5천900여만원 대비 57% 증가한 9천300여만원

을 기록했다. 관심을 끌었던 ‘하멜촌 맥주’ 1만병이 모두 소진됐으며 카스제로와 스텔라, 한맥 등도 모두 소진되는 기록을 남겼다. ‘하멜촌 맥주’는 강진군에서 조선을 서양에 알린 네덜란드인 헨드릭 하멜을 브랜드화한 맥주다. 맥주의 최고 파트너인 치킨류를 포함한 안주 역시 저렴한 가격에 품질이 높아 재료가 바닷나기도 했다. 지역 상인들은 물론 새마을부녀회 등

**7만 인파 북적...전년비 관광객 55%·입장 수익 57% 상승**  
**‘하멜촌 맥주’·치킨 재료 소진...지역 상권들 ‘행복한 비명’**

자생·사회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봉사로 1억2천만원 이상의 판매고를 올렸으며, 공공배달앱 먹깨비 등 강진 상권 활성화 특별 이벤트를 통해 1억원 이상이 지역에 소비되는 효과를 낳았다. 특히 축제 3일자 마지막날에는 강진군 명예홍보대사인 가수 문희옥과 윤도

현 밴드의 공연으로 관광객들의 흥겨움을 끌어올렸다. 오스트리아에서 온 유학생 플로리안 베네딕트 그로스 메이어는 “한국여행을 즐기는 친구와 함께 여행을 통해 강진에 왔다”며 “한국 가수들의 춤과 노래, 관광객들의 열정적인 반응에 정

▲강진군이 1만원에 무제한 맥주를 즐길 수 있는 제2회 강진 하맥축제를 개최한 가운데 수도권은 물론 전국 각지에서 온 방문객들이 함께 모여 축제현장을 즐기고 있다. <강진군 제공>

말 놀랐다”고 말했다. 관내 한 치킨 업체 대표는 “지난해보다 많은 주문이 쏟아져 그야말로 ‘비명’을 질렀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이후남 강진군축제추진위원장은 “열정적으로 축제에 참여해준 관광객들에게 감사하다”며 “내년 제3회 강진 하맥축제도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강진=정영록 기자

강진원 강진군수는 “남해안 최고의 치맥축제로 자부하던 강진 하맥축제가 이제는 대한민국 최고의 한여름 치맥축제로 자리매김 했다”며 “다음달 29일부터 열리는 제9회 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 때도 공공배달앱 먹깨비 연계 등을 통해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강진=정영록 기자



완도군이 최근 완도해양치유센터에서 신우철 완도군수, 해양바이오기관 및 전문가, 기업 대표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해양바이오산업 육성위원회 회의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완도군 제공>

## 완도군, 해양바이오산업 차별화 전략 마련

육성위원회 회의서 추진 현황 공유·국고 건의 전략 등 논의

완도군이 해양바이오산업 차별화 전략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일 완도군에 따르면 최근 완도해양치유센터에서 ‘제3회 해양바이오산업 육성위원회 회의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신우철 완도군수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전남바이오진흥원 등 해양바이오기관 및 학계 전문가, 기업 대표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중부·동해·남해권 등 거점별 해양바이오산업 추진 현황’과 ‘해조류 바이오 스마트 팩토리 구축’에 대한 주제 발표 후 토론회가 이어졌다. ‘해조류 바이오 스마트 팩토리’는 고

가능성 해조류의 계절적 생산 한계를 극복하고 바이오 원료를 표준화할 수 있는 육상 생산·가공설비를 구축해 원료를 기업체에 공급하는 시설이다. 완도군은 해조류 바이오 스마트 팩토리 구축을 위해 지난해부터 국고 건의를 통해 타당성 조사 용역 국비 2억 원을 확보하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주제 발표에 나선 장덕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구개발부장은 “완도군은 해조류산업의 입지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전략과 지원을 마련하고 있다”며 “지역 기업이 사업 수행 주체로 참여하

는 민간·정부 융합형 사업 추진을 통해 해조류 특화 해양바이오산업 활성화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주제 발표 후 토론회에서는 타 권역별 해양바이오산업과의 연계 필요성 및 완도만의 차별화 전략과 함께 해양바이오산업화를 위한 소재 대량 생산에 필요한 해조류 바이오 스마트 팩토리 구축 타당성 조사 용역에 대한 자문과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신우철 군수는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구성된 육성위원회에서 제안한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정부·민간 융합형 해조류 특화 해양바이오산업 구조를 구축하겠다”며 “해조류 바이오 스마트 팩토리를 반드시 유치하고 유용 소재의 대량 생산을 통해 해양바이오산업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완도=윤보현 기자

## 목포시립도서관, 기증도서 분류 작업 돌입

직장문고·취약계층 독서문화 진흥사업 지원

목포시립도서관은 “최근 바이오스마트그룹이 기증한 도서 3천권을 그룹 계열 출판사인 시공사(SIGONGSA)로부터 수령(사진)하고 분류 작업에 돌입했다”고 2일 밝혔다. 목포시립도서관은 올해 상반기에 기증된 4천500여권의 도서에 대해 소중하게 활용할 계획이다. 먼저 부족한 장서를 확충하고 일부

는 직장문고와 취약계층 독서문화 진흥사업에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목포시립도서관은 올해 신간 도서와 이용자 희망도서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번 바이오스마트그룹의 도서 기증과 시민들의 책 기증 운동에 힘입어 평년 규모의 도서 확충 목표를 이룰 수 있게 됐다. /목포=정해선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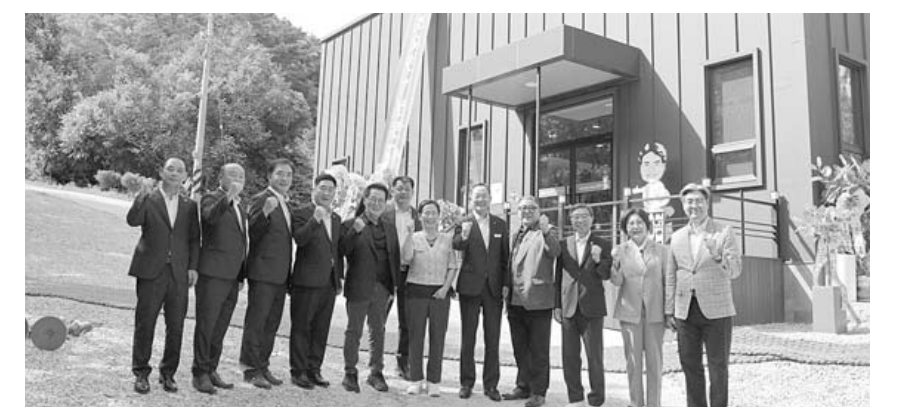


목포시립도서관은 “최근 바이오스마트그룹이 기증한 도서 3천권을 그룹 계열 출판사인 시공사(SIGONGSA)로부터 수령(사진)하고 분류 작업에 돌입했다”고 2일 밝혔다. /목포=정해선 기자

## 해남 출신 ‘아시아의 물개’ 조오련 기념관 개관

해남군 계곡면 법곡리에 조성 수영일지 등 전시...생전 뜻 기려

해남군은 “최근 계곡면 법곡리에 조성된 ‘조오련 기념관’ 개관식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개관식에는 명현관 해남군수, 박지원 국회의원, 이성욱 해남군의회 의장과 군의원, 지역주민, 체육계 관계자 등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기념관에는 조오련 선수가 득도 횡단 후 있었던 한복, 트로피·훈장, 어머니 손편지, 서재의 책들과 사용했던 책상, 수영 훈련 일지 등을 전시해 그의 일대기와 도전 정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기억하고 기리는 장소로 조성했다. 조오련 선수는 지난 1952년 해남읍 학동리에서 태어나 국가대표에 발탁, 1974년 제7회 아시안게임 수영 남자 자



해남군 계곡면 법곡리에 조성된 ‘조오련 기념관’ 개관식을 개최했다. <해남군 제공>

유형 400m, 1500m에서 아시아 신기록 금메달을 획득하며 ‘아시아의 물개’라는 별칭을 얻었다. 특히 1980년에는 대한해협, 1982년에는 영국도버해협, 2008년에는 독도 33바퀴 릴레이 횡단 프로젝트 등 끊임없는 도전 정신과 스포츠를 통한 역사의 식 고취로 국민들에게 희망과 감동 안겼다. /해남=박필용 기자

그는 2009년 독도 재횡단 프로젝트를 준비하던 중 갑작스럽게 별세했으며, 2020년에는 대한민국 스포츠 영웅에 헌액됐다. 명현관 군수는 “조오련 기념관이 국민들에게 조오련 선생의 생전 뜻을 잊지 않고 기리는 열린 공간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해남=박필용 기자

## 영암중소, 인구감소지역 특례보증길 열렸다

郡-농협 영암군지부 MOU...최대 30억 대출·보증 지원

영암군은 “최근 군청에서 농협은행 영암군지부와 ‘인구감소지역 기업지원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사진)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특례보증 사업 대상, 영암군 이차보전 비율·절차를 합의하고, 기업 성장 촉진과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기업지원 특례보증은 행정안전부가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인구감소·관심지역 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협약으로 영암군과 농협은행



영암군지부(왼쪽)와 농협은행 영암군지부(오른쪽)가 인구감소지역 특례보증 업무협약 체결을 기념하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영암군 제공>

을 위해 인구감소·관심지역 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협약으로 영암군과 농협은행

영암군지부는 지역중소기업에 최대 30억원 규모의 대출과 보증을 지원한다. 특례보증 지원 대상은 ▲지역 주력 산업 기업 ▲지방 이전 기업 ▲신성장 동력산업 기업 ▲기업가형 소상공인 기업 등이다. 특례보증 기업으로 선정되면 농협은행의 저금리 대출, 신용보증기금의 우대보증, 영암군의 이차보전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이번 특례보증은 지역 중소기업이 더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기반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영암=나동호 기자

## 신안군 ‘1004섬 분재학교’ 개강

이론·실습 등 교육...지역 정원문화산업 활성화 기대

신안군은 2일 “3일부터 오는 11월25일까지 제4기 ‘1004섬 분재학교’ 초급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매주 월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며, 총 12회에 걸쳐 48시간으로 이뤄졌다. 특히 이번 교육 이수부터는 교육 대상은 신안군민에 한정하지 않고, 전국으로 확대해 모집했다. 분재는 최근 젊은 층 사이에 새로운 취미 생활로 부상하고 있다. 복잡한 일상 속 마음의 평온을 찾을 수 있는 분재는 단순한 취미를 넘어 자신만의 독창적인 작품을 만드는 예술 활동으로

주목 받고 있다. 선발된 19명의 교육생은 유리온실 및 작업장에서 전문강사의 지도로 분재의 개론, 수목 병리, 수목 번식법 등 다양한 내용을 배우게 된다. 신안군은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분재 관리 및 작품 연출 방법을 체계적으로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분재문화의 저변을 확대하고, 지역 정원문화산업을 더욱 활성화할 방침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분재에 관심 있는 많은 이들이 전국에서 신안으로 모여 들고 있다”며 “특히 젊은 층의 적극적



신안군 1004섬분재학교 교육생이 만든 작품 전시사 진. <신안군 제공>

인 참여가 분재 문화를 더욱 활기차고 창의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신안=양홍기 기자